

수도권

민주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했는가?

김영필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19대 총선 결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다.

19대 총선 직전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통합당은 80석에서 127석 확보, 통합진보당은 7석에서 13석 확보로 약진했고, 새누리당은 총선직전 162석에서 10석을 잃은 152석 확보에 그쳤지만 선방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의 패배, 새누리당의 승리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한다.¹⁾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듯이 새누리당의 19대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을 이끈 한명숙 전 대표는 대표 선출 90일, 19대 총선 이틀 후에 타의에 의해 당 대표의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주통합당

1)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 2012.04.16, 4면)

[표 1] 19대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수 변화

정당별	19대 총선 직전 의석수	19대 총선 결과 의석수
새누리당	162	152
민주통합당	80	127
통합진보당	7	13
자유선진당	14	5
창조한국당	2	0
국민생각	1	0
무소속	27	3
계	293	300

이 19대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한명숙 대표가 대표직을 내던짐으로써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기본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새누리당임에 틀림없다.

2. 수도권에서 승리하면 원내 제1당이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19대 총선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사뭇 다른 평가가 나타난다. 호남지역을 예로 든다면 민주통합당이 압승한 지역일 것이고, 영남지역을 예로 든다면 새누리당이 압승한 지역일 것이다. 또한 지난 18대 총선과는 다르게 강원도 지역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아성으로 등장했다. 9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석권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충청권에서도 과거 제3당의 지위에 불과했던 위치에서 일약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7대 총선 이후 3회 연속으로 제주도 의 3개 의석을 석권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선거결과를 고려할 때, 총선의 진정한 승패는 모두 112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서울 48석, 경기 52석, 인천 12석의 행방이 국회 다수당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일면 그럴듯한 면이 있다.

[표 2] 19대 총선 권역별 의석분포

권역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기타
수도권	43	65	4		
강원권	9				
충청권	12	10		3	
호남권		25	3		2
영남권	63	3			1
제주권		3			
비례대표	25	21	6	2	
합계	152	127	13	5	3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논리이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지역에는 모두 30개의 의석이 배분되는데 반하여 영남지역에는 모두 67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주통합당은 1차적으로 37석의 핸디캡을 안고 수도권에서 새누리당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표 3〉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수도권 96석 가운데 56석을 획득했지만 제1당이 되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40석을 차지해 그 의석차는 16석에 불과했고, 이는 결국 지역주의가 견고한 상태에서 사이즈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새천년민주당의 한계를 노정했다.

[표 3] 역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분포 현황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16대 총선	전국	112(49.3)	96(42.3)	-
	수도권	40(41.2)	56(57.7)	-
	서울	17(37.8)	28(62.2)	-
	경기	18(43.9)	22(53.7)	-
	인천	5(45.5)	6(54.5)	-
17대 총선	전국	100(41.2)	129(53.1)	2
	수도권	33(30.3)	76(69.7)	-
	서울	16(33.3)	32(66.7)	-
	경기	14(28.6)	35(71.4)	-
	인천	3(25.0)	9(75.0)	-
18대 총선	전국	131(53.5)	66(26.9)	2
	수도권	81(73.0)	26(23.4)	-
	서울	40(83.3)	7(14.6)	-
	경기	32(62.7)	17(33.3)	-
	인천	9(75.0)	2(16.7)	-
19대 총선	전국	127(51.6)	106(43.1)	7(2.8)
	수도권	43(38.4)	65(58.0)	4(3.6)
	서울	16(33.3)	30(62.5)	2(4.2)
	경기	21(40.4)	29(55.8)	2(4.2)
	인천	6(50.0)	6(50.0)	-

[] : 지역별 의석수 대비 백분율

*: 옛 한나라당

** : 16대 새천년민주당,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

***: 옛 민주노동당, 19대 통합진보당

반면, 탄핵후폭풍이 거셌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 76석을 차지해 33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한나라당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모두 152석을 차지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제1당이 되었으며,

지역주의의 뒷에 걸려 항시 35-40석 정도의 핸디캡을 안고 임했던 원내 제1당 경쟁에서 수도권 압승으로 당당히 승리하였다.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81석을 획득하여 여유 있게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26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전체의석수도 81석을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얻은 의석수와 같았다. 그야말로 참패였다.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성적표는 새누리당이 43석 민주통합당이 65석이었고 통합진보당도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4석을 얻었다. 야권을 모두 합해도 69석에 불과하여 새누리당과의 차이는 26석이었다. 새누리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프리미엄 37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도권에서의 성적표로는 야권이 과반수를 얻어 원내 제1당이 되기 어려운 선거결과였던 것이다.

3. 19대 총선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표 4〉는 19대 총선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주요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와 득표율이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전국득표율이 42.8%였던 것에 비하면 수도권 득표율이 0.3%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전국득표율 36.5%보다 2.36% 정도 수도권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 통합진보당도 전국득표율보다 수도권득표율이 0.12% 높게 나타난다.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수도권에서 전국득표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보수성향의 정당인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지역색이 진보성향의 정당들보다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수도권 보수 대 진보 정당 비례대표 현황

(단위 :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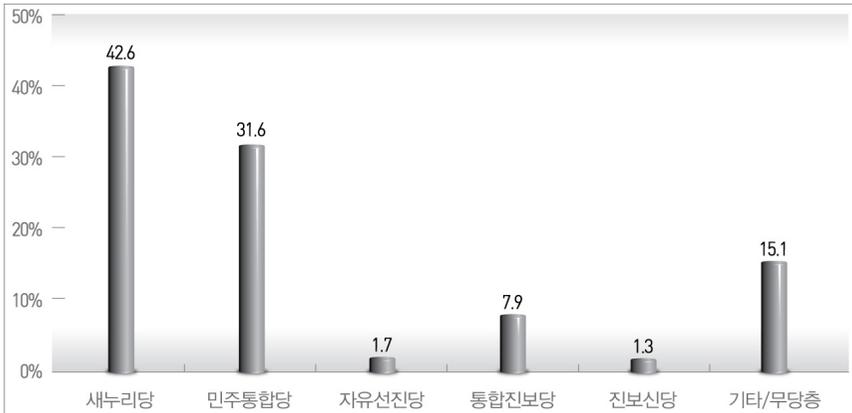
지역	보수성향 정당			진보성향 정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기독교자유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서울	1,940,259 (42.28%)	96,966 (2.11%)	48,711 (1.06%)	1,751,344 (38.16%)	484,735 (10.56%)	67,826 (1.47%)
인천	477,505 (42.90%)	29,394 (2.64%)	16,511 (1.48%)	419,474 (37.68%)	108,099 (9.71%)	13,126 (1.17%)
경기	2,023,659 (42.35%)	103,401 (2.16%)	61,289 (1.28%)	1,803,369 (37.74%)	526,118 (11.01%)	49,659 (1.03%)
합계	4,441,414 (42.51%)	229,761 (2.30%)	113,178 (1.06%)	3,974,187 (37.86%)	1,118,952 (10.42%)	130,611 (1.22%)

주 : 문화일보, 2012.04.16, 5면.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19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완료된 직후인 3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960명을 상대로 RDD 방식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른 정당지지도는 [그림 1]과 같다.

새누리당 42.6%, 민주통합당 31.6%, 통합진보당 7.9%, 자유선진당 1.7%, 진보신당 1.3%, 무당파 15.1%로 나타나, <표 4>의 실제 비례대표 투표결과와 비교해본다면, 새누리당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2% 정도와 2.5% 정도 지지율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15.1%에 해당하는 무당파 층의 일부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로 돌아선 결과이다.

[그림 1] 정당지지도(3월 24일-25일 조사 결과)



위에서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견고한 수도권 지지율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조사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는 42.6%였다. 실제 4.11 총선 수도권 비례대표 득표율 42.51%와 같다. 이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새누리당 지지표는 결집되어 있었다는 반증이다. 15.1%에 달하는 무당파층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지지도를 향시적으로 얻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타 정당이 누릴 수 없는 새누리당만의 강점이다.

수도권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의 견고함은 <표 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탄핵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비례대표 득표율이 35%대를 유지했다. 수도권 득표율 35%는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이다. 반면 민주당은 18대 총선 수도권 비례대표 득표율이 27%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지지도가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더 견고함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지율이 바닥을 친 후,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급상승하여 이후 줄곧 민주당을 압도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도

친박연대를 포함한 수도권 지지율은 50%를 넘었다. 야권연대 돌풍이 거뒀던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앞섰다. 다만, 진보당의 지지도가 10% 중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세력면에서 새누리당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작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1:1 대결을 성사시켰다. 그야말로 진검승부였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는 46.2%를 득표했고, 야권단일후보로 나선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53.4%를 득표했다. 1:1 대결에서 보수표가 결집했지만, 이미 6.2 지방선거 이후 대세를 형성한 야권단일대오의 힘을 꺾을 수준은 아니었다.

[표 5] 역대 선거 정당 지지율 현황

(단위 : 백분율)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17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35.76	38.26	13.03
	서울	36.67	37.71	12.58
	경기	35.42	40.23	13.52
	인천	34.60	39.51	15.32
4대 지선 광역비례	서울	57.14	21.34	9.97
	경기	58.89	22.33	10.85
	인천	57.85	20.64	13.70
18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37.48 (친박포함 50.66)	25.17	12.42
	서울	40.22 (친박포함 50.66)	28.31	12.45
	경기	40.92 (친박포함 52.16)	26.37	13.35
	인천	39.68 (친박포함 50.54)	24.55	12.43
5대 지선 광역비례	서울	41.38	40.99	12.59
	경기	41.77	37.35	16.83
	인천	40.98	42.05	13.25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박원순
		46.2		53.4
19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42.80	36.45	10.30
	서울	42.28	38.16	10.56
	경기	42.35	37.74	11.01
	인천	42.90	37.86	9.71

*: 옛 한나라당
 **: 17대 및 4대지선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5대지선 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
 ***: 4대 지선 민노당, 18대(민노+창조+진보), 5대지선(민노+진보+국참), 19대 통합진보당

그런데 이번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6.2 지방선거에서의 41%대 지지율을 바닥으로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약 2% 정도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많게는 약 5% 정도까지 하락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는 53.4%를 득표하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수를 모두 합하여도 48.72%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진보진영의 지지율을 앞선 것은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새누리당은 상승곡선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야당은 하강곡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수도권 민심 무엇이 같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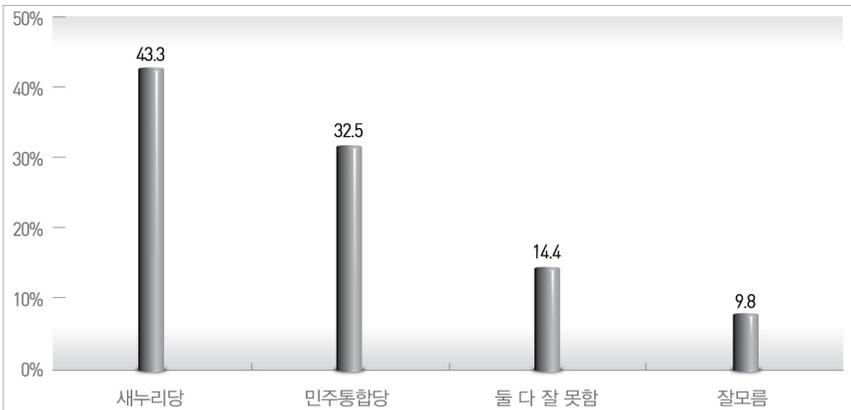
1) 공천

각 정당들은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의 민심의 향배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은 공천쇄신이니 공천혁명이니 하면서 물갈이를 단행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언론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공천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좋은 인물을 영입하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천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공천이 끼어들게 되면 모든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이 민주통합당의 공천보다는 더 나은 점수로 수도권 유권자에게 평가 받고 있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도권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의 공천보다는 새누리당의 공천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었다. 이는 정당지지도 차이 11%와 거의 같은 수치로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의 85.5%가 새누리당 공천을 더 잘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민주통합당 지지층은 70.2%만이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더 잘했다고 응답하였다.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는 공천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그림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에 대한 만족도(3월 24일-25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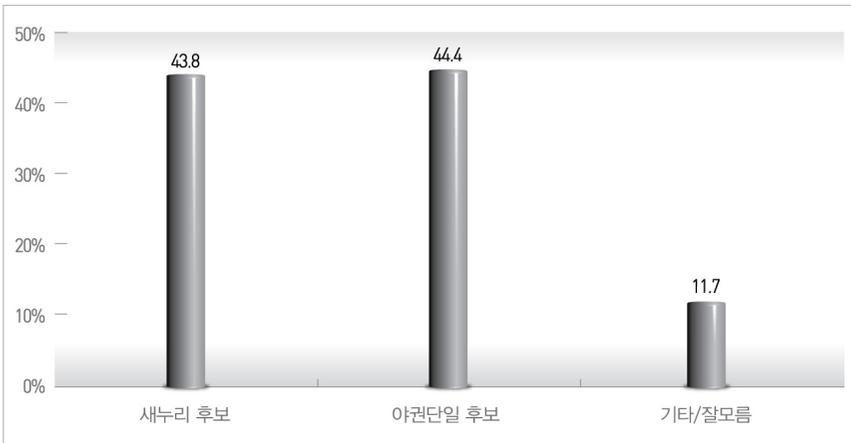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한 이유는 언론환경이 민주통합당에게 불리한 이유도 있었지만, 1월 15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이후 나타난

민심의 표출을 당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였고, 인사의 난맥상에서 시작된 리더십이 공천경선과정의 후유증과 겹치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공천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상당부분 지지율을 까먹고 있었다.

2) 야권연대

[그림 3]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연대 단일후보 지지여부(3월 24일-25일 조사)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야권연대 단일후보는 진보진영에서는 ‘전가의 보도’였다. 정당지지도와 공천만족도에서 새누리당에 뒤졌던 민주통합당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이유는 야권연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야권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가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높았다. 기타/잘모름이 11.7%를 차지하는 했지만, 이는 야권연대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야권단일후보가 흡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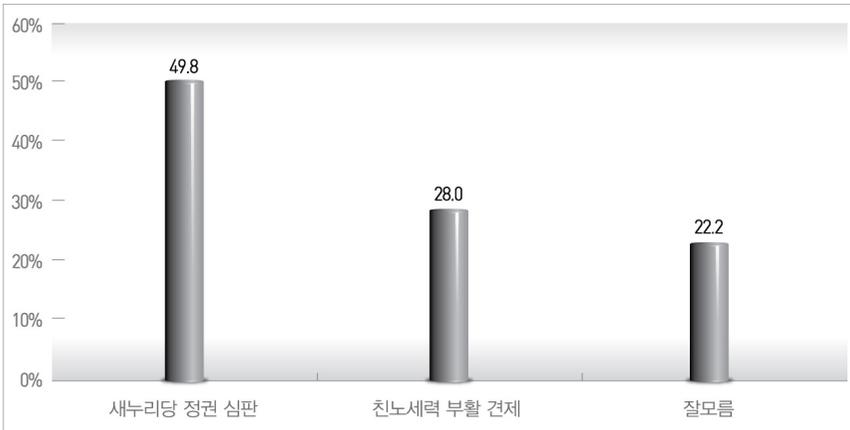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민주통합당의 속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43.8%를 나타내 새누리당 지지의 견고함을 드러내었으며, 이미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야권연대로 인한 정당지지율의 시너지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소선거구에서의 야권연대는 수도권에서는 상당할 정도의 위력을 나타냈다. 정당지지율과는 상이한 지역구 의석차가 이를 반증한다.

3) 이슈

[그림 4] 정권심판론, 거야견제론(3월 24일-25일 조사)



민주통합당은 총선기간 내내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다.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심판론에 올인하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BBK 의혹에 올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다른 이슈들이 묻혀버렸다. 그것이 패착이었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슈였지만 심판의 주체가 꼭 민주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였다.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의 동업자라는 의미에서 '이명박근혜 심판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거야견제론, 친노세력 부활 견제론을 들고 나왔고, 국정실패세력으로써 민주당 지도부를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위안을 삼기에는 충분한 슬로건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슈들이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의 몰타기 전략과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올인 전략에 이슈가 약화되면서 어젠다 중심의 선거운동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진 못한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유권자들로부터 인식 받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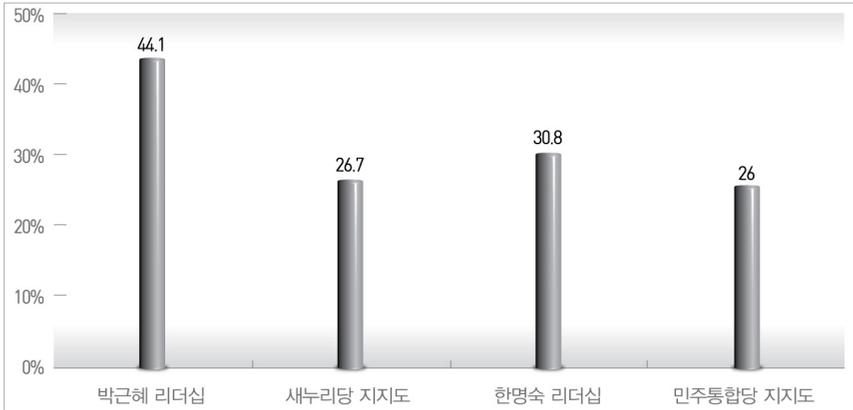
민간인 사찰은 선거판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였으나, 민주당의 전략적 미숙함과 김용민 파동으로 유아무야되어 버렸다.

4) 리더십

[그림 5]는 19대 총선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민주정책연구원이 한상진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선거를 총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 평가를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의 비율이 44.1%로 한명숙 대표의 30.8%에 비해 14%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26.7%라는 점을 감안하면, 17.4%에 해당하는 새누리

[그림 5] 양당지도부에 대한 기대감과 정당지지도



당을 지지하지 않은 집단도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의 개인적 리더십이 총선에서 주요한 동원자원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는 조사결과이다. 결국 4.11 총선에서 박근혜 리더십은 충분히 그 가치를 발하였다.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의 비율은 30.8%로 민주통합당 지지율 2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박근혜 위원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한명숙 대표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인 한계를 노출하였다. 같은 시간 노출되는 박근혜 위원장과 한명숙 대표의 인물 대립구도는 민주통합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손학규 등 대선 후보들이 지원유세를 통해 박근혜 위원장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와 공천을 통해서도 노출되었지만, 선거기간 중에 불거진 김용민 후보의 막말파문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써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모든 객관적인 조건상 민주통합당보다 우위에서 출발한 선거였다. 정당지지도가 앞서 있었고, 공천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근거에 자리 잡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이슈도 수도권에서의 야권승리²⁾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수권능력을 보여주지만 한다면 승리는 야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천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이미 선거전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야권연대 과정에서의 부정논란이 야권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슈와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야당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견고하고 이미 결집된 상황에서 이를 능가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기저로 하는 분노의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많던 야권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민주통합당을 수권정당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고, 이겨야 하는 선거였으나, 결과는 졌다. 수도권에서 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지역주의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이제 민주통합당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수도권에서의 야권승리라 함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야권의 핸디캡 37석을 보정할 수 있을 정도의 승리를 말한다. 즉 야권이 수도권 의석 112석 중 75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을 37석 이상 앞서는 결과를 말한다.